

고려대학교 본관  
Main Building of Korea University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남동 1가

1949년 11월 15일 개교 이래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명문대학교로서  
전통과 혁신을 잇는 대학의 본연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인류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 PROFILE

### 인권환 명예교수

고려대 국문학과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2002년까지 고려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민속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일본 교토대 초빙교수, 하와이대 초빙강사, 일본 메이지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한용운 연구>, <한국민속학사>, <고려 시대 불교사 연구>, <토끼전 수궁가 연구>, <판소리 창자와 실전사실 연구>, <한국문학의 불교적 탐구> 등이 있다.

Q

**석탑이라는 용어가 고려대의 별칭이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요?**

**인권환** ●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고려대 캠퍼스에 본관, 도서관(현 대학원), 서관 등 웅장한 석조건축물들이 지어진 이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석탑이라 불리는 것은 본관 좌측 언덕 위에 높이 솟은 옛 도서관입니다. 현재 사적 286호로 지정된 기념물로 고대의 상징적 건물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손꼽히는 석조건물이지요. 그러니 고대 석탑의 역사는 7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대 석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김현섭 교수가 전문가이니, 애깃거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고대신문에 기고한 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려대 건축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김현섭**

● 전문가라고 하시니 송구스럽습니다. 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멋진 건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런 모습이 언제, 어떻게 갖추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건축과를 나와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나서게 된 것이지요.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석조건축물들이 단순히 조형적인 아름다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촌 선생이 품고 있던 교육에 대한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환**

● 맞아요. 흔히 고대를 가리켜 막걸리대학, 호랑이대학, 석탑의 대학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교우들의 모임, 잡지, 신문 칼럼명, 동아리 등에 돌 석(石) 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습관적으로 쓰고 있고, 캠퍼스의 멋진 석조건축물들을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만 할 뿐 그 안에 담긴 정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막걸리가 고대의 품성이나 감성, 민족정신을 대변한다면 호랑이는 용맹한 기상과 고대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돌은 고대의 지성과 예지, 냉철한 판단력과 비판 정신의 표상이지요. 고대 석조건축물들의 역사를 알림으로써 석탑의 정신을 되새겨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문, 석조건축을 상징하는 고려대담계 석탑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면에 호랑이 두상과 벽면에 무궁화가 조각되어 있다.
2. 본관을 중심으로 좌측 서관과 우측 중앙도서관, 뒷쪽 인촌기념관까지 조화롭지만 일률적이지 않은 석탑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1  
2

**Q**  
**고려대 건축물들이**  
**석조,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조건물로 표현한 민족 교육의 원대한 꿈**

**김현섭** ● 고대의 석조건축물을 주로 설계한 사람은 박동진<sup>1)</sup>이라는 건축가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1년 8개월간 미국·유럽 등을 다니며 세계 유수의 대학을 견학하고 돌아온 인촌선생이 있었지요. 세계적인 대학들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런 근대교육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결심을 한 인촌 선생은 보성전문을 인수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설계하면서 건축 소재로 돌을 고집했던 것은 당시 미국·유럽의

유서깊은 대학들이 대부분 석조건물인 것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은 1년 8개월의 외유 기간 중 1년을 영국에서 보냈다고 하니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두 대학은 가장 오래된 학교이자 학문의 발상지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니지요. 학문의 신성한 가치와 물리적 외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건축가 박동진 역시 석조건축이라면 고딕양식이 좋을 거라 추천했다고 합니다. 인촌 선생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많은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박동진과 함께 그것을 보며 설계에 참고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크게 아쉽습니다.

**인권환** ● 고대의 석조건축은 인촌 선생과 건축가 박동진 선생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민족 교육에 대한 인촌의 원대한 꿈과 박동진의 탁월한 예술세계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인촌은 건축 소재로서 돌을 사용하는데 대해 강한 집념이 있었어요. 건축 순서로 보면 본관이 첫 번째고, 다음이 도서관, 세 번째가 서관입니다. 서관을 지을 때가 50년대 중반이었는데, 건축비가 부족해 짓다가 자꾸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총장이었던 유진오 선생이 “그냥 시멘트로 짓자”고 건의했지만 인촌이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끝내 서관이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병환 중에도 여러 차례 건축 현장에 나와 건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 이후 고대는 석조건축물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일본 메이지대에서 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대의 석조건축물들은 건물 자체도 아름답고, 배치도 잘 되어 있어 아주 멋있다”고요. 메이지대는 우리 학교보다 역사가 오래지만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캠퍼스가 좁아요. 좁은 공간을 활용하려니 학교 건물을 현대식 빌딩처럼 지어 놓아 답답해 보이죠. 그 말을 들으니 우쭐한 마음이 들더군요.

**김현섭** ● 고대 석조건축물에 쓰인 소재는 돌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화강암입니다. 게다가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건물에 사용된 화강암은 인근 중앙동 채석장에서 가져 왔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흔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건축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고딕양식을 차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유수의 대학을 보면서 학문의 신성한 가치를 담는 그릇으로서 고딕양식의 건물이 가지는 권위와 위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 건축사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중앙도서관(대학원)은 당시 교수였던 오천석<sup>2)</sup> 선생의 모교인 미국 듀크대학<sup>3)</sup>의 도서관을 모방해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그분이 미국 유학을 한 것은 맞지만 듀크대는 아니었던 것을 알게됐어요.

주석: 1), 2), 3) 내지 22쪽



## PROFILE

### 김현섭 교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국비장학생으로서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근대건축사를 연구했으며, 2008년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건축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간 일본 건설성 건축연구소와 핀란드 헬싱키대학 및 알바 알토 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핀란드, 이태리,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 다양한 논고를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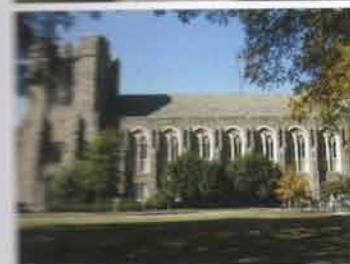
**인 권 환** ● '오천석 선생의 모교인 듀크대의 도서관을 참고해 지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올 초에 제가 교수회보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고대유사>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서관 건물을 언급하면서, '인촌 선생이 세계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첩과 당시 교수였던 오천석 선생이 자신의 미국 대학 졸업앨범에서 참고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어 속단하기 어렵다'고 썼지요. 정설처럼 굳어진 그 얘기를 그대로 썼더라면 오류를 반복하는 셈이 될 뻔 했네요.

**김 현 섭** ●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오류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반복 재생산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처럼 굳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보성전문 도서관의 건축적 연원탐구〉, 《건축역사연구》 2012년 8월호 게재 예정) 그러다 교수회보에서 오 선생이 쓴 '석탑야사'라는 글을 찾아냈어요.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촌 선생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 대학 중 참고할 만한 대학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때 마침 오 선생이 미국 여러 대학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듀크대학 도서관이 좋아보여 추천을 했는데, 인촌 선생도 아주 흡족해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 권 환** ●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 현 섭** ● 네, 그래서 당시 오 선생이 가지고 있던 카탈로그가 어떤 것인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듀크대학 아카이브 담당자에게 연락해 1930년대 초에 출간된 학교 안내책자나 카탈로그 등을 확인했지요. 그 중 31년도에 나온 회보(bulletin)를 보니 사진이 꽤 여럿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해의 회보에는 주로 글만 있었는데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오천석 선생이 1930년대 초에 듀크대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책자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니온(N)자 형태로 되어 있고 코너 부분에 탑이 올라간 형식은 두 대학이 아주 흡사합니다.

**인 권 환** ●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모교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1. 2층 본관 정문 호랑이 두상과 중앙도서관의 정면. 세밀하고 섬세한 디테일로 현존하는 석조건축물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2. 중앙도서관 건축설계의 불교가 되었던 유크대학교 도서관. 탑의 위치가 왼쪽 모서리에 있으며 나선(나)자형 구조인 것이 비슷하다.

**김현섭** ●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시 카탈로그를 구해서 가지고 있고 직접 튜크대도 다녀왔는데 전체구성은 매우 유사하지만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튜크대 도서관 옆 건물인 의대 건물의 디테일과 유사점이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촌, 오천석, 박동진 선생이 참고한 자료가 이게 맞다면, 어느 한 건물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전통적으로**

**조화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본관, 대학원 도서관, 서관**

**목조 건축 위주인**

**김현섭** ●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는 근대 들어 석조건축물을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학교 외에도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석조건물로 유명하지요. 연세대는 1920년대에 지어져 건축시기로는 고대보다 빠르지만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이라 소박하고 검소한 맛이 있습니다. 소재도 화강암이 아니고요. 반면 인촌 선생은 고대 캠퍼스를 조성하며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돌을 다듬고 쌓은 모습만 봐도 웅장함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또 하나, 고

**우리나라에서**

**고려대 석조건축물이**

**갖는 의미, 혹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의 대표적인 석조건축물이 본관, 도서관, 서관인데 이 세 건물의 배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본관이 권위적인 모습으로 당당히 중심에서 있고 두 건물이 날개처럼 양 옆을 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조그만 일탈도 허락하지 않는 숨막히는 대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는, '변화 속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건축가들의 해안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이 대칭의 위치에 있지만 전혀 다른 매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인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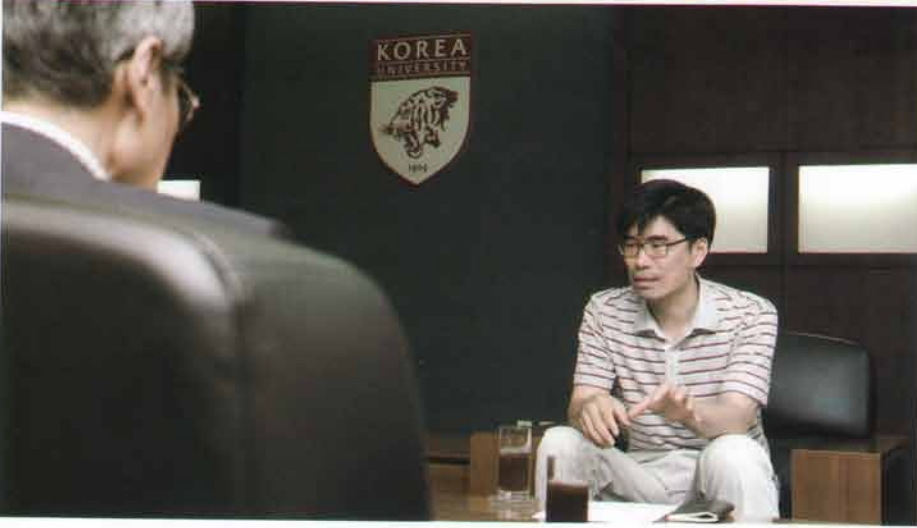
● 저도 캠퍼스를 걷다 보면 인촌 선생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이렇게 멋진 건물을 세워 그림같은 캠퍼스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설계한 박동진 선생은 어떤 분이었나요? 누군가 '고려대 석조건축이 매우 훌륭하게, 어디서도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감탄하는 걸 들으면서 박동진이라는 건축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김현섭**

● 박동진 선생은 근대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건축가 1세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건축가라는 직종이 없었지요. 박동진 선생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일종의 기술학교이자 서울대 공대의 전신인 '경성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 건축을 배웠다고 합니다. 박동진 선생이 고대 50주년을 축하하며 고대 신문에 '그라니트(granite, 화강암)의 변'이라는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인촌 선생을 만났고, 어떻게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촌 선생이 당시 박동진 선생을 만나 "우리 보성전문은 마땅히 조선인 건축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인촌은 늘 손님이 오면 안암동 캠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 조선인 기술자가 설계한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환**

● 그 분이 본관, 서관 외에 다른 건물들도 설계를 많이 했지요?



**Q**  
**건축학자가 바라보는  
 '돌'과 인문학자가  
 바라보는 '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현섭** ● 네, 지금은 없어진 여학생회관과 예전 박물관 건물을 비롯해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 고대 캠퍼스의 모습은 모두 박동진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박동진 선생 작품의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석조고딕건물이던 것이 후반부로 갈수록 매우 근대주의적인 양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예전 과학관 건물(지금의 우당교양관 자리)과 이공대 본관(지금의 제2공학관), 이 두 건물은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계속 석조를 고집할 수 없었던 첫째 이유는 자금 부족이었던 것 같고, 둘째 이유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석탑의 영원불변함과 강인함 속에 담긴 고대 정신**

**김현섭** ● 화강암은 석회암이나 대리석에 비해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단단한 화강암이 제격이었던 것이죠.

1. 연자방아, 캠퍼스 내에는 이외에도 태항아리 석함, 3층 석담, 기암괴석 등 돌로 만들어진 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





- 1
- 2

1. 미래교육관(가칭)은 고대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대강당 자리에 세워질 신개념 교육인프라로서 본관과 서관 사이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예정이다.
2. 100주년 기념관. 2005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준공되었으며, 세계고대 100년을 준비하는 고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인 권 환** ● 문학작품 속에서도 바위나 돌을 소재로 노래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좋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를 보면 자연의 다섯 친구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꼽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꽃과 풀에 비교하면서 '꽃은 피면서 저버리고, 풀은 파랑다가 누래지는데 돌만은 변함이 없어 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청마 유치환 시 '바위'는 생명 존재의 근원, 허무를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를 바위에 빚대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고대만 해도 피란 시절에 학생들이 문학동아리를 만들어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게 '석탑문학'입니다. 당시 조지훈 선생이 창간호에 서문을 썼는데, 거기서 석탑의 뜻풀이를 했어요. '돌은 바로 석굴암을 조성한 그 화강암이요, 탑은 바로 노아의 홍수 뒤에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의 의욕이 쌓아올리던 바벨(Babel)의 탑-석탑문학의 지향은 바로 민족적이며 세계적인 것이라야 한다'고. 또, 김종길 시인의 '돌의 논리'라는 명시를 통해서도 탁월한 석탑의 인문학적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석탑의 정신과 전통,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김 현 섭** ●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들이 여전히 석탑의 이미지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화강암 외장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인문사회계 쪽은 석탑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더라도, 자연계 캠퍼스는 이런 패러다임을 벗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면 이것은 젊은 교수들인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겠지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석탑의 기품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선보여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천년을 준비하는 고대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 권 환** ● 저는 학생들에게 석탑을 통해 고대의 높은 정신과 고고한 존재라는 것을 체득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대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높은 기상을 돌을 통해 배우고, 졸업 이후에도 석탑의 정신을 잊지 말고, 모교를 생각할 때는 항상 석탑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가끔 한번씩은 캠퍼스에 와 학창 시절 자신이 세웠던 뜻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풍파에 휩쓸려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석탑을 보면서 그 영원성을 배우고, 삶의 의지를 굳건하게 다져 보십시오. 이 건 석탑의 학교, 고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신이자 특권입니다.

**김 현 섭** ● 오늘 석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0년, 고대는 강력한 지도력과 저항정신, 굳건한 의지와 투지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지 돌아 보게 되네요. 교수, 학생, 교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선배님들이 이루었던 석탑정신을 되새키지 않고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인 권 환** ● 김 선생은 건축학도인데도 인문학적 통찰력이 뛰어나 놀랐습니다. 인문학 과 과학을 결합해 석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대답이 많은 고대인들에게 석탑정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KU**

주석: 4) 내지 22쪽